



『디스코팡팡 위의 해시계』

최하연 시집

디스코팡팡 위의 해시계,
몇 시냐고 물으면 당신들의 모든 시간에서 한 줄만 빼요
들끓고 뒤섞이며 무한으로 달려가는 시어들

문학실험실 펴냄 / 115*183 / 156쪽 / 양장 / 값 10,000원 / ISBN 979-11956227-6-4 03810

발신: 문학실험실 (대표 이인성)

수신: 언론사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 인터넷서점 홍보 담당자

담당: 010-4212-0752

SNS를 배회하지 않는, 시집 아니면 담을 수 없는 시편들

『디스코광광 위의 해시계』는 2003년 『문학과사회』 신인상으로 등단한 이래, 『피아노』 『팅커벨 꽃집』을 내놓은 최하연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최하연 시인은 SNS를 전혀 하지 않는다. 요즈음 웬만한 작가라면 자의든 타의든 SNS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소위 문학의 죽음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많은 사람이 문학 작품을 멀리한다는 사실이 작가들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매달리게 한다. 그 계기야 다양하겠지만 저변을 관통하는 이유는 대개 그렇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작품이 아닌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 작품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SNS는 독자가 작가를 만나는 가장 손쉬운 통로가 된 지 오래다. 시는 특히 더 그렇다.

이와 같은 시대에 최하연 시인을 알 수 있는 길은 그의 작품을 읽는 것 말고는 없다. 시인의 독자 역시, 그러한 시인의 성향과 닮아서인지 SNS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SNS의 거품 속에 소위 ‘대단히’ 과소평가된 시인 중 하나이다. 시인의 독자들은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그의 시를 읽는 것은 시집을 통해서일 때 온전한 시 읽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독자들은 새기고 있다.

그의 시집은 그러므로, 책방의 서가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 인터넷 서점이 아닌 생생한 현실의 책방, 특히 동네의 작은 책방에서 최하연의 시집을 만나는 것은 반가움조차 과잉된 감정으로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다. 마치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있는 것처럼, ‘디스코광광 위의 해시계’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기억되는 기억들, 기억 연작

바람은 안에서 밖으로 불고
빗방울은 아득한 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득한 곳으로
떨어진다
내 편 아닌 모든 것은 잠들라
아침이면 난 이곳에 없으리니
용케 짓지 않은 꽃잎도
꽃잎 아래 웅크린 하늘도
바람은 안에서 불고
꿈은 밖에서 짓는다
잠들라, 짓지 않는 밤의 노래도
부르지 못한 이름도
다 잠들라
내 안으로 자라는
마른 뿌리도
기약 없던 당신의 마른 젓가슴도
이제는 젖어서 모두
꿈 밖에 놓인다
하늘로 떠가는 새와
그 아래 잠든 침묵이여
숲이 숨길 수 없는
비밀의 무게와
저 적막한 입술 위에
잠시 머물다 사라진 간절한 기도도

벼락처럼, 이슬처럼,
잠시 왔다가 떠내려가는
하얀 손의
악몽 같은 것들도
이 바람 속, 이 아득한 물방울 속에서
다 잠들라
—「기억 꽃잎」 전문

“뒤돌아보지 마라.”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금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돌이 되거나, 소금 기둥이 되거나,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는 단지 옛이야기가 아니다. 뒤돌아본다는 것, 즉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결단이 필요한 행동, 그러한 상태인 것이다. 결단하고 기억하려 해도 우리의 생활이, 세상이 속삭인다. ‘앞만 보고 가야지, 세상이 컨베이어벨트처럼 흐르고 있는데, 남은 것과는 멀어져야 해.’ 그러므로 ‘세월호’를 굳이 떠올릴 것도 없이, 기억은 머리로만 할 수 없기에, 몸에 새기게 된다.

시는 시인의 몸이다. 몸에 새긴 기억들이 돌로, 소금 기둥으로 굳어진 몸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굳어버린 몸이므로 더욱더 선명히 빛을 낸다. 『디스코광광 위의 해시계』에 수록된 시편들, 그중에서도 기억 연작들은 시인의 몸에 새긴 기억들이다. 컨베이어벨트가 가는 방향을 거슬러 뒤돌아보며 새긴 기억들이다. 그 기억들을 독자들은 읽고 또 다른 기억의 돌이 된다. 이로써 시인과 독자는 시 쓰기와 시 읽기를 하나로 연결하며 기억하기, 즉 ‘시+하기’를 하는 것이다.

텅 빈, 사이와 사이로 감싸 올린 기억들

서시에 해당하는 「기억 꽃잎」에서는 “아득한 곳에 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득한 곳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에도 “용케 젖지 않은 꽃잎”이 있고 “그 아래 웅크린 하늘”이 현실의 풍경을 위아래 뒤집은 이미지로 제시된다. “불현듯 찾아온 난독증”은 “다리가 짧아진 밤” “칼 맞는/ 밤”에 일어나고(「기억 날」), “사라질 때마다/ 사라지는” “아이”와 “늘 나를 남겨놓고 다니는” 내가 있다(「기억 범람」).

“달리기를 멈췄을 때/ 시작되는 기차의 이야기” 속에 “조금씩 모자란 유년의 그림자가/ 하나둘/ 어둠으로 돌아”가고(「기억 안개」), “눈물 한 방울이/ 빛의 속도로/ 너에게로” 가는, “냉장고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엔 냉장고가 있”는 “영혼”이 “얼어 죽”는 “오늘 밤”(「기억 계절」)은 “새가 새로 낸 길로만/ 다니는” “귀신에겐 없는 금 밖의 세계”(「기억 구름」)이다. “풀잎 위에/ 허무주의가/ 젖은 것과 젖지 않은 것 사이로” 땀히고(「기억 군락」), “골목과 대문 사이” “창문과 창문 사이” “공이 짙”고 (「기억 퇴적」), “악어의 잠과 토끼의/ 눈물 사이에” “슬리 퍼 한 짹”이 걸린다(「기억 방」). 그 “슬리퍼 한 짹”이 어찌면 최하연의 시인지도 모른다. 결핍이면서 효용성이라 고는 단 한 방울도 없는, 나머지 한 짹의 행방도 모르고,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

— 최규승, 「기억과 기억 사이, 어떤 시간과 아무 공간」 중에서

저자 소개 | 최하연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3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받아 등단했다. 시집 『피아노』 『팅커벨 꽃집』을 펴냈다.

차례

1부

기억 꽃잎
암흑과 빛 사이에 놓인 불투명한 것들을 한꺼번에 깨무는 방법
오베론
기억 날
내가 그린 구름 그림
기억 범람
눈을 뜨니 풀밭이었다
기억 풍랑
피리 부는 사내
삭망
밤과 낮
명륜동
기억 구름
기억 소음

2부

디포에게
아이들의 혈관은 나날이 투명해진다
기억 안개
기억 계절
춘분 지나
해화로9길
해화로9길 끝에서
빵을 씹으면 귀신이 보이는 풍경 1
빵을 씹으면 귀신이 보이는 풍경 2
빵을 씹으면 귀신이 보이는 풍경 3
빵을 씹으면 귀신이 보이는 풍경 5
파산
바다를 등지지 마십시오
응상폐차장
극점

3부

모서리가 없어서
모서리를 찾아서
기억 군락
겨울잠
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앞 로터리 공사가 끝난 어느 날
제게 편견을 하나 주소서, 그러면 제가 세상을 움직이리라
우주 배구공
콩
콩콩
기억 퇴적

한없이 낮은
끝난 것은 죽음
설거지 읊
오버행
나무 아래 침묵이 흘렀다
3월 21일
봄비
기억 방

시인의 말

기억과 기억 사이, 어떤 시간과 아무 공간 _최규승

문학실험실이 준비한 <툭-창작문고> '콘셉트' 작품집 시리즈의 여섯 번째 책

독립 문학 공간이자 비영리 사단법인인 문학실험실은 <툭-창작문고>의 첫 책으로 2016년 5월 김혜순 시인의 『죽음의 자서전』을 출간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책으로 김종호 작가의 연작소설집 『디포』, 세 번째 책으로 김선재 작가의 연작소설집 『어디에도 어디서도』, 네 번째 책으로 신인 작가 김효나의 『2인용 독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진연주 작가의 『이 방에 어떤 생이 다녀갔다』, 여섯 번째 책으로 최하연 시인의 『디스코팡팡 위의 해시계』를 선보입니다.

문학실험실은 한국문학의 질적 발전과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해, 도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언어 탐구의 작업들을 기획하고 실천해나갈 목적으로 2015년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학실험실의 <툭-창작문고> 시리즈는 **작가의식과 문학적 문제의식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양질의 작품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문학실험실의 <툭-창작문고> 시리즈는 정성을 다한 양장 제본으로 꾸며졌지만 무겁지 않은 판형으로 가볍게 지니고 다니며, 어디서든 읽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교양서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김혜순 시집 『죽음의 자서전』
- 김종호 연작소설집 『디포』
- 김선재 연작소설집 『어디에도 어디서도』
- 김효나 연작소설집 『2인용 독백』
- 진연주 연작소설집 『이 방에 어떤 생이 다녀갔다』
- 최하연 시집 『디스코팡팡 위의 해시계』